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접근이 건강행태 개선에 미치는 영향

김승대*, 김명관²

¹위덕대학교 보건학과, ²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pproach to health information on improvement of health behavior

Seung-Dae Kim^{1*} and Myung-gwan Kim²

¹Department of Health, Uid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Promo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요약 본 연구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 건강정보를 어떻게 접근하여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건강행태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경북의 일개 대학의 224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과 건강 관련 서적보다 인터넷 검색에 대한 분석결과가 유의미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B=.103(p=.007)$, 건강정보 접근빈도가 많아질수록 $B=.137(p=.008)$, 기존의 건강행태 점수가 높을수록 $B=.431(p=.000)$ 만큼 건강행태 개선의 점수가 증가하였다. 인터넷이 건강정보 검색에 있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원하는 정보를 즉시 탐색하여 비교적 금방 얻어낼 수 있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은 건강전문가 등이 출현하여 건강정보를 알려주므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보다 우수하나 맞춤형으로 방송을 보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으나 건강 관련 서적과 방송은 인터넷에서 다시보기 및 e-book으로 전환되는 점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면이 있다.

Abstract The goals of this study are understanding the state of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health behavior who are about to graduate and have to consider their health for getting a job according to the way of access and achieving health information and suggesting effective way to improve health behavior. 224 people who responded to the survey which was conducted at some universities in Kyungpook area are selected as a subject of fina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of internet searching was more meaningful than the analysis result of TV programs or books regarding health. And the older grade($B=.103, p=.007$), the more access to health information($B=.137, p=.008$) and the higher score of existing health behavior($B=.431, p=.000$) the score of improvement of health behavior was increased. Internet searching for health information is the most popular thing because information can be easily get after searching what you want immediately. TV program regarding health has better quality than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health professionals giving health information on TV but it is difficult to watch TV program whenever you want. However the separation between books, TV program and internet is obscured in that the books and TV program can be turned into replay and e-book on internet.

Key word : health information, health behavior improvement, health education, health mass media

1. 서론

한국의 대학 진학율은 70.9%로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며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대학생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취업을 희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Seung-Dae Kim(Uiduk Univ.)

Tel: +82-10-7311-7508 email: sdkim@uu.ac.kr

Received January 16, 2015

Revised (1st February 11, 2015, 2nd February 26, 2015, 3rd March 4, 2015)

Accepted May 7, 2015

Published May 31, 2015

망하는 대학생들이 많으며, 기업들은 지원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건강상태도 전형에 포함된다. 2013년의 고용률은 39.7%로 2004년의 45.1%에 비해 점점 낮아져왔다[1]. 신입사원이 입사한 후에도 기업들은 장기적인 업무효율을 위하여 건강관리를 하도록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2012년의 모든 업종을 통틀어 법정 외 복리비 중 건강보전에 관한 비용사용은 평균적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법정 외 복리비 10가지 항목 중에서 6순위를 차지하고 있다[2].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기업들도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원들의 건강유지에 고민한다[3,4,5]. 2008년에는 법정의 복리비 중 건강보전에 관한 비용사용의 평균이 5.3%로서 2012년에 5.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입사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은 건강관리가 요구되며, 대학생이 건강관리를 스스로의 건강증진이나 건강문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접근을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건강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관련된 연구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어떤 방식의 건강정보접근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의 건강을 개선할 만큼의 건강정보를 획득하는데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많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접근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에 대해 알아보고, 결과에 따라 건강에 대한 정보획득 및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1.3 용어의의

1.3.1 건강정보접근방법

건강정보접근이란 ‘인터넷 검색’, ‘TV의 건강 관련 방송’, ‘건강 관련 서적’, ‘오프라인 건강 관련 강의’, ‘주변인의 조언’, ‘전문가 자문’ 등 어느 매체를 통해 건강정보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특성에 차이가 나기를 말한다.

1.3.2 건강정보접근방법 이용에 관한 사항

건강정보접근방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란 건강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이용편의성, 신뢰성, 다양성, 비용성, 이용빈도 등 접근방법에 따라서 이용적 측면에서

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한다.

1.3.3 건강행태

건강행태란 개인이 자기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다[6].

1.3.4 건강행태 개선

건강행태 개선이란 개인이 자기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 중에서도 불건강한 행동이 여전히 존재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북의 일개 대학에서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대학교 교내에 이동이 원활한 구간에서 절주 및 금연 홍보를 보건학과 학생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후 즉시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는 직접 개발한 도구로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과 계열, 학년, 주된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건강정보 접근 방법(인터넷, TV의 건강 관련 방송, 건강 관련 서적, 건강정보 접근 방법의 이용에 관한 사항 9문항(신뢰도:Cronbach $\alpha=0.886$, 타당도:KMO=0.457, Bartlett $p=0.046$), 현재의 건강행태 13문항(신뢰도:Cronbach $\alpha=0.637$, 타당도:KMO=0.599, Bartlett $p=0.000$) 및 건강정보 접근 방법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 5문항(신뢰도:Cronbach $\alpha=0.741$, 타당도:KMO=0.782, Bartlett $p=0.000$)에 대하여 각 도구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서 문항의 수에 따른 평균으로서 분석을 시행했다. 도구들의 신뢰도(Cronbach $\alpha \geq 0.700$)와 타당도(KMO ≥ 0.500 , Bartlett $p \leq 0.050$)는 전반적으로 적합하였으나 현재의 건강행태의 신뢰도(Cronbach $\alpha=0.637$) 및 건강정보 접근 방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의 타당도(KMO=0.457)가 약간 미흡하였다.

2.2 연구대상

경북 소재의 일개 대학교에서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총 참여 인원 300명 중

불충분한 응답 76명을 제외한 224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디 G Power 분석을 통한 F test ANOVA의 Effect size=0.25(Medium), α error probability=0.05, Power=0.96, groups=3의 Total sample size는 264명이었기에 259명에서 269명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충분한 응답 등의 탈락을 예상하여 총 참여 인원을 300명 정도로 증가시켰었다. 그러나 탈락 인원이 예상보다 좀 더 많았다. G Power 분석을 통한 최종분석 대상인 224명의 Power는 Effect size=0.25(Medium), α error probability=0.05, groups=3으로 했을 때 Power=0.93이었다.

2.3 연구도구

각 연구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3.1 건강정보접근방법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접근방법은 젊은 세대인 대학생이 대체로 선호하면서도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인터넷 검색’, ‘TV의 건강 관련 방송’, ‘건강 관련 서적’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2.3.2 건강정보접근방법의 이용에 관한 사항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접근방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이용빈도 1문항, 신뢰성 3문항, 다양성 3문항, 비용성 2문항 등 총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3.2 건강행태

본 연구에서 건강행태는 식품 및 영양 섭취에 관한 사항 6문항, 운동에 관한 사항 2문항, 흡연 및 음주에 관한 사항 2문항,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1문항,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2문항으로 총 13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3.4 건강정보접근방법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

건강정보접근방법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에 대해서는 건강정보의 실제적 효과성, 건강정보의 실행 신뢰성, 건강정보의 획득정확성, 건강정보 실행 용이성, 건강정보 경제적 이용접근성 등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4 자료분석 방법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기법은 전반적인 대상자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Frequency Analysis, 건강정보접근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건강정보접근과 건강행태 및 건강행태 개선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orrelation Analysis,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에 미치는 요인파악을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접근 방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접근 방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인터넷 검색의 경우 성별은 남자 49명 38.9%, 여자 77명 61.1%, 학년은 1학년 33명 26.2%, 2학년 36명 28.6%, 3학년 45명 35.7%, 4학년 12명 9.5%, 학과는 인문 16명 12.7%, 사범 12명 9.5%, 사회 11명 8.7%, 자연 58명 46.0%, 공학 19명 15.1%, 예체능 10명 7.9%, 거주형태는 자택 55명 43.7%, 자취 17명 13.5%, 기숙사 54명 42.9%였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의 경우 성별은 남자 37명 45.1%, 여자 45명 54.9%, 학년은 1학년 26명 31.7%, 2학년 20명 24.4%, 3학년 34.1%, 4학년 9.8%, 학과는 인문 7명 8.5%, 사범 8명 9.8%, 사회 11명 13.4%, 자연 44명 53.7%, 공학 8명 9.8%, 예체능 4명 4.9%, 거주형태는 자택 39명 47.6%, 자취 12명 14.6%, 기숙사 31명 37.8%였다. 건강 관련 서적의 경우 성별은 남자 8명 50.0%, 여자 8명 50.0%, 학년은 1학년 6명 37.5%, 2학년 3명 18.8%, 3학년 5명 31.3%, 4학년 2명 12.5%, 학과는 인문 2명 12.5%, 사범 0명 0.0%, 사회 4명 25.0%, 자연 5명 31.3%, 공학 3명 18.8%, 예체능 2명 12.5%, 거주형태는 자택 5명 31.3%, 자취 2명 12.5%, 기숙사 9명 56.3%였다.

건강정보 접근 방법에 따른 건강행태 점수는 인터넷 검색이 2.44점, TV의 건강 관련 방송이 2.53점, 건강 관련 서적이 2.83점이었고, 건강행태 개선 점수는 인터넷 검색이 2.65점, TV의 건강 관련 방송이 2.66점, 건강 관련 서적이 2.80점이었다[Table 1].

Table 1. Approach Method of Health information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General feature

Variable	Internet search		TV's Health broadcast		Health books	
	N	%	N	%	N	%
Sex						
Male	49	38.9	37	45.1	8	50.0
Female	77	61.1	45	54.9	8	50.0
Grade						
Freshman	33	26.2	26	31.7	6	37.5
Sophomore	36	28.6	20	24.4	3	18.8
Junior	45	35.7	28	34.1	5	31.3
Senior	12	9.5	8	9.8	2	12.5
Department						
Humanities	16	12.7	7	8.5	2	12.5
Education	12	9.5	8	9.8	0	0
Social	11	8.7	11	13.4	4	25.0
Nature	58	46.0	44	53.7	5	31.3
Engineering	19	15.1	8	9.8	3	18.8
physical education & Art	10	7.9	4	4.9	2	12.5
Residential types						
Home	55	43.7	39	47.6	5	31.3
Rented room single	17	13.5	12	14.6	2	12.5
Dormitory	54	42.9	31	37.8	9	56.3
Total	126	100.0	82	100.0	16	100.0
Grand Total = 224						
Health Behavior	Min=1.23, Max=3.23 Mean=2.44		Min=1.46, Max=3.23 Mean=2.53		Min=2.38, Max=3.23 Mean=2.83	
Health Behavior improvement	Min=1.00, Max=3.40 Mean=2.65		Min=1.80, Max=3.80 Mean=2.66		Min=2.20, Max=3.40 Mean=2.80	

Table 2. Use to Health Information according of Health Behavior Improvement

Variable	N	Internet search		N	TV's Health broadcast		N	Health books	
		M±SD, F	Scheffe		M±SD, F	Scheffe		M±SD, F	Scheffe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Sometimes ^A	23	2.38±0.59, 5.960**	A<BC	14	2.47±0.43, 3.512*	-	1	2.40±0.00, 1.365	-
Normal ^B	55	2.66±0.46		40	2.77±0.38		5	2.92±0.27	
Often ^C	48	2.76±0.29		28	2.61±0.35		10	2.78±0.30	
Health information use cost									
Expensive cost ^A	17	2.53±0.55, 0.689	-	7	2.80±0.57, 1.116	-	3	2.80±0.40, 1.915	-
Normal cost ^B	35	2.66±0.42		25	2.72±0.39		7	2.94±0.22	
cheapness cost ^C	74	2.67±0.45		50	2.61±0.37		6	2.63±0.29	
Use problem to favorite health information									
High expensive ^A	23	2.61±0.48, 0.205	-	13	2.43±0.40, 3.895*	A<BC	3	2.87±0.23, .113	-
Low diversity ^B	48	2.64±0.47		42	2.76±0.38		9	2.80±0.36	
Low reliability ^C	55	2.68±0.43		27	2.62±0.36		4	2.75±0.25	
Total	126	2.65±0.45		82	2.66±0.39		16	2.80±0.30	

* p<.050, ** p<.010

3.2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이용 및 건강행태 개선

대학생들이 건강정보 이용에 따른 건강행태 개선 중 건강정보 접근 빈도에 따라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검색과 TV의 건강 관련 방송이었다. 건강정보 접근 빈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은 가끔 이용하는 경우 23명 2.38점, 보통 이용하는 경우 55명 2.66점, 자주 이용하는 경우 48명 2.7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60, p=.003$). 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가끔 이용하는 군보다는 보통 이용하는 군과 자주 이용하는 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은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14명 2.47점, 보통 이용하는 경우 40명 2.77점, 자주 이용하는 경우 28명 2.6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17, p=.035$). 그러나 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집단군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건강정보 이용비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선호하는 건강정보 이용 문제점에 대해서 TV의 건강 관련 방송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높은 비용의 문제가 있는 대학생들의 건강행태 개선 점수가 2.43점, 낮은 다양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2.76점, 낮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2.6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895, p=.024$). 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비싼 비용의 문제보다 낮은 다양성의 문제와 낮은 신뢰성의 문제가 동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이용 및 건강행태 개선 간에 관계

대학생들이 건강정보 이용과 건강행태, 건강행태 개선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만이 건강정보 접근 빈도가 높을수록 ($r=.282, p=.001$) 건강행태 개선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현재의 건강행태 점수가 높을수록($r=.365, p=.000$) 건강행태 개선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이나 건강 관련 서적은 상관계수에 있어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Table 3].

3.4 대학생들의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주된 요인

대학생들의 건강행태 개선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인터넷 검색은 $Adj R^2=.219(p<.001)$ 의 모형설명력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of Use to Health Information

Variable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Health information use cost	Health Behavior	Health Behavior improvement
Internet search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1		
	Health information use cost	.163	1	
	Health Behavior	.134	-.125	1
	Health Behavior improvement	.282**	.088	.365**
TV's Health broadcast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1		
	Health information use cost	-.009	1	
	Health Behavior	.053	-.080	1
	Health Behavior improvement	.052	-.165	.026
Health books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1		
	Health information use cost	-.238	1	
	Health Behavior	-.458	.310	1
	Health Behavior improvement	.070	-.295	.187

** p<.010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 on Health Behavior Improvem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p	
	B	SE	β			
Internet search	(Constant)	.874	.307		2.846	.005
	Grade	.103	.037	.219	2.752	.007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137	.050	.221	2.719	.008
	Health information use cost	.076	.051	.122	1.491	.139
	Health Behavior	.431	.100	.348	4.319	.000
	Adj R ² =.219, F=.000, p=.000					
TV's Health broadcast	(Constant)	2.821	.397		7.105	.000
	Grade	-.002	.047	-.004	-.032	.974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028	.067	.051	.427	.671
	Health information use cost	-.099	.068	-.164	-1.454	.150
	Health Behavior	.012	.128	.011	.094	.925
	Adj R ² =.020, F=.594, p=.668					
Health books	(Constant)	1.376	1.351		1.018	.331
	Grade	-.048	.087	-.177	-.556	.589
	Health information approach frequent	.098	.152	.204	.645	.532
	Health information use cost	-.157	.114	-.391	-1.373	.197
	Health Behavior	.573	.436	.485	1.315	.215
	Adj R ² =.073, F=.746, p=.581					

나타내었으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요인이었다. TV의 건강 관련 방송과 건강 관련 서적에 대해서는 적합한 모형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을 하는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B=.103, $p<.010$), 건강정보 접근빈도가 많아질수록 (B=.137, $p<.010$), 현재의 건강행태 점수가 높을수록 (B=.431, $p<.001$)으로 건강행태 개선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고찰

본 연구는 경북 지역 일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건강정보 접근이 건강행태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접근 방법 중 인터넷은 총 224명 중 126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터넷의 건강정보 접근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97.2%로 인터넷의 보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7].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http://naver.com>)와 다음(<http://daum.net>) 등은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운동, 식이 분야 등 각종건강매체들과 연계해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8,9]. 건강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근하느냐는 인터넷 검색과 TV의 건강 관련 방송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터넷 검색은 많이 접

할수록 건강행태 개선 점수가 높아졌고, TV의 건강 관련 방송은 보통 이용이 가장 건강행태 개선의 점수가 높았다. 인터넷은 원하는 의료정보를 직접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10,11]. TV의 건강 관련 방송은 방송을 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질은 높다. 하지만 기획되어진 대로 방송하므로 인터넷에 비해 자유도는 낮은 편이다. 선호하는 건강정보 이용 문제점에서 TV의 건강 관련 방송이 낮은 다양성에서 건강행태 개선 점수가 가장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택의 다양성은 낮지만 건강전문가들이 출현하는 방식인 TV의 건강 관련 방송은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12]. 시청자들은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유익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를 알기 쉽고 주제에 맞게 전달한다고 느끼고 있다[13,14,15]. 반면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찾아가는 본인이 직접 찾는 것이기에 수용 또는 신뢰함에 있어 전문성이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건강행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주 이용할수록 건강행태 개선의 점수가 높았고, 기존의 건강행태 점수가 높을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행태 개선 점수도 비례하여 높아졌다. 원하는 정보를 즉시 탐색하여 신속하게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점 [16], 기존의 건강행태 점수가 높은 대학생은 얻은 건강정보를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한 건강정보인지 가려내는 점이다.

둘째, TV의 건강 관련 방송은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접하는 것이 인터넷에 비해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 접근 시 건강전문가가 출연하여 관련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다양성은 인터넷 건강정보 접근에 비해 낮지만 수용자인 대학생은 전문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선 인터넷 건강정보 보단 높았다. TV에서 방영했던 건강 관련 방송은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거나 선택이 가능하다.

셋째, 건강 관련 서적을 이용하는 대학생은 소수여서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다. 최근엔 e-book으로 인터넷에서 전자서적을 이용할 수 있기에 서적 이용 측면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와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이 있었다.

즉, 인터넷 이용환경이 우수한 우리나라는 세월이 지날수록 인터넷 기반 건강정보 획득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결론에 따른 건강정보 접근 방법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이 건강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방법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TV와 서적을 통한 방법도 인터넷에 귀속되었다. 인터넷이 모바일로 가능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서비스(m-Healthcare)가 등장하고 있다[17].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접근성은 높지만 대학생들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맞춤형으로 얻고, 선별 및 수용하여 행태로 이어지는 것은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여부의 문제이므로 국가에서 전문가 인증 건강정보를 제공해야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e-Natinal Index, Young People Employment Trend (www.index.go.kr), 2013
- [2]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of Korea (<http://laborstat.molab.go.kr/>), corporation expense, legal out of welfare expense, 2012.
- [3] Chun-hui Suh, Jong-tae Lee, Dae-hwan Kim, Byung-chul Son, Chang-hee Lee, Hui-dong Kim, Jin-hong Ahn. The Actual Implementing Status of the Preplacement Medical Examination after the Annualment of the Preemployment Medical Examination.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3):174-181. 2008
- [4] Edward PH. The preplacement evaluation. Med Clin North Am ; 83(6):1583-96. 1999.
DOI: [http://dx.doi.org/10.1016/S0025-7125\(05\)70181-4](http://dx.doi.org/10.1016/S0025-7125(05)70181-4)
- [5] Jacobs P, Chovil A. Economic evaluation of corporate medical programs. J Occup Med. 25(4):273-8. 1983.
- [6] Korean Academy of Nursing, The Great Encyclopedia of Nursing Science: Definition of the Health Behavior, 1996.
- [7] OECD (<http://www.oecd.org/statistics/>), OECD member nation of household internet diffusion rate, 2013.
- [8] Naver health (<http://health.naver.com/>), 2014.11.20.

[9] Daum life health well-being (<http://media.daum.net/life/health/>), 2014.11.20.

[10] Soo-young Kim, Internet health inform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 23 No.3 pp281-291. 2002

[11] Yu-jin Jeon, The Utilizing Patterns of Health Information Services and Its Related Factor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Dept of Hospital Management, 2006

[12] Hae-shun You, Health Behavior and Program Cognition by Audience's Attitude toward Health Program of Broadcast.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t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1-69, 2001

[13] Koh, Ae-Kyung, Tv The Analysis of TV Health Information Program and Its Application Schem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Master Degrees of thesis, pp58-63, 2007.

[14] Yanovitzky, I., 7 Bennett, C. Media attention, institutional response, and health behavior change: The case of drunk driving, Communication Research,26, 429-453. 1999.
DOI: <http://dx.doi.org/10.1177/009365099026004004>

[15] Yanovitzky, I., Effects of news coverage on policy attention and action: A closer look at the media-policy conne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9, 422-451. 2002.
DOI: <http://dx.doi.org/10.1177/00936502029004003>

[16] Jeong-eun Park. A study on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the Use of Fitness Center: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1-97, 2005

[17] Pil-seong Jeong, A study on MAC Protocol Design for Mobile Healthcar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Dept of Electronics & Communications Engineering. 1-117, 2013

김 명 관(Myung-Gwan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위덕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학사)
- 2013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건강증진학과 석사 (보건학석사)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교육, 보건의료정책

김 승 대(Seung-Dae Kim)

[정회원]



- 1991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1990년 4월 ~ 2007년 5월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의무기록실장
- 2008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보건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병원관리, 건강증진, 의무기록실무